

## 새 교육의 이념

〈국민 교육 헌장〉 제정에 즈음하여

한 나라의 미래는 그 교육으로써 저울질 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이야말로 앞날의 한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중대성을 이처럼 강조하면서도 우리 나라 교육만큼 그릇된 제도 위를 줄달음친 것도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대로 지식을 습득하면 그대로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미신( ? )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온갖 비극이 빚어져 왔고 국민의 교육 과열을 틈탄 교육 사업가, 아니 기업가들의 횡포가 그대로 묵인되어 왔었다. 병역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특전과 아울러 졸업장만 받으면 행세를 할 수 있다는 풍조 때문에 과교육은 이상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안으로서 인문과를 억제하고 기술 공업 과목에 중점을 둔다는 정부의 새 시책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 느낌이다. 사실 과거의 인문 과학이 제대로 성숙할 정도로 발전되지 못한 형편에서 이를 억제한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교육에 결코 좋은 미래를 약속해 준다고는 믿을 수 없다. 인문 과학의 억제보다도 인문 과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 우리 나라의 문교 당국의 근시안적 미봉책이 더욱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라도 바라는 교육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직한 인간상>을 이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

적한 인간상의 이념이 서지 않는 교육은 결국 지식의 축척에서 끝나고, 거기서 교육의 소의 현상이 생겨질 것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작해야 교육은 지식과 졸업장의 교환으로 간주되고 인간성의 깊이와 성숙성을 찾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비판이 결코 비관적인 면만 들추어 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교육 혁명을 하므로써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에서 한국적인 인간상을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 제도와 윤리 의식이 어떻게 근대적인 가치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교육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탐색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새 차원에서 추구하고 새로운 시민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새 공동체 의식에서만 우리는 참된 시민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조적인 교육 이념을 형성하려면 서구 민주주의의 교육 이념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일보다 그 이념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의 만남을 어떤 시점에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에는, 언제나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끈덕지게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도 이 권위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한국의 근대화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긴장을 어떻게 힘의 재분배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힘의 분배는 반드시 권력이라는 좁은 의미의 분배가 아니고 모든 민간 활동을 권장하

이 구심적이라기보다 원시적인 균등 분배를 초래하는 자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 힘의 재분배로 말미암아 비로소 빈부의 차별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힘의 재분배는 권위주의를 말살하는 일보다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참된 현대적인 인간상, 이 말테면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상을 개발하는 장구한 교육 계획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폭력으로 이룩한 힘의 재분배는 사회악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오늘의 한국 교육은 참으로 역사적인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념과 프라그마티즘을 종합하고, 참된 전인간 교육을 공동체와 개인의 상극, 조화를 한다는 관점에서 추구할 때 우리나라에는 새 교육 이념을 형성할 기회가 닥쳐오고야 말 것이다.

이번 읍살라에서 모인 WCC 4차 대회에서 전 총무 비쉴트프리트 박사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긴박한 문제는 공동체에의 반응을 표시하는 새 인간상>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New Humanity의 문제는 비단 교육에 한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인류가 회구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신학 교육도 현대의 일반 교육 이념 형성에 근본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전인간 교육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